

제20회 부천신인문학상 소설 부문 심사평

고단한 청년들의 삶을 담은 작품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것이 사회구조의 모순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 시대 청년들에 대한 애뜻한 마음이 더욱 깊어지는 지점이었다. 환상적 알레고리로 세계관을 드러내거나 독특한 역사관을 바탕으로 펼친 상상력도 흥미로웠다. 무엇보다 소설의 완성도와 작가만의 고유한 색깔에 주목하여 성장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심사에 임했다. 전반적으로 응모작품들의 수준이 높고, 서사에 대한 갈망과 의지가 강한 작품들을 만나 소설의 앞날이 희망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올가미>는 중심 서사가 두드러지는 소설은 아니었으나 인물의 형상화, 플롯과 섬세한 심리묘사, 강렬한 문장이 돋보여 작가의 개성이 두드러진 작품으로 투고작 중 완성도가 가장 높았다. 작가적 기량도 뛰어났다. 다만, 일석이 다듬어지는 과정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의견이다.

<간병인>은 고령화 시대의 대표적 공간인 요양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서사구조가 안정적이고 주인공이 삶을 대하는 태도에 신뢰가 갔다. 그러나 결말이 꼭 그래야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았다.

<빈 집은 없다>는 현세대를 반영하여 가족 구성원 각자가 나름의 홀로서기를 실행함으로써 '빈집'을 형상화하는 솜씨가 사뭇 진지하고 유려했다. 사유의 힘이 돋보이고 소설 쓰기에 대한 내공이 깊은 작품이었다.

<무당거미>는 소설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깊고 무당거미와 화자의 내면을 은유하여 섬세하게 빛낸 작품이었다. 찢긴 상황 속에서 주인공의 심리적 갈등을 공감으로 이끌어내는 힘이 있었다.

심사위원이 개별적으로 속독을 거친 뒤 작품의 장단점을 살피고 논의하여 <무당거미>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당선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정진을 기대한다.

심사위원 김혜정(소설가)

제20회 부천신인문학상 소설 부문 심사평

이번 제20회 부천신인문학상 단편소설 부문에 응모한 작품은 총 26편이었다. 문학이 꼭 세태를 대변하지는 않으나, 이번 응모 작품들의 대다수가 젊은이들의 취업이나 빈곤, 삶의 질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장시간의 숙의를 거쳐 최종심에 오른 작품은 「올가미」와 「무당거미」였다. 두 작품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소설적 형식구조와 문체 그리고 개성을 갖고 있었다.

우연치 않게 두 작품은 묘하게도 닮아있었다. 둘 다 1인칭 소설인 점이 우선 그렇고, 「올가미」는 비둘기, 「무당거미」는 제목 그대로 무당거미를 각각 상징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처지와 심리적인 연결 장치를 만든 것도 그러했다. 또한 둘 모두 힘겹게 삶을 살아가는 현 청년 세대를 그리고 있다. 다만 「올가미」는 통칭 술집 나가는 여자가, 「무당거미」는 몇 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이 주인공인 점이 달랐다.

두 작품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모두 우수했지만, 심사위원들의 토의와 숙고 끝에 「무당거미」를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올가미」는 작품의 장점이기도 한 자의식과잉이 때로 흐름을 부자연스럽게 만든 반면, 「무당거미」는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게 매끄럽게 이어가는 이야기의 힘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나머지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분들의 문운이 활짝 피어나시기를 바란다.

심사위원 안명숙(소설가)

제20회 부천신인문학상 시 부문 심사평

20회를 맞이한 부천신인문학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응모해주신 예비 시인들에게 감사한다. 다른 심사위원은 몰라도 나는 감회가 깊다.

올해 시 부문 응모자는 모두 52명에 265편이 접수되었다. 그중에서 접수번호 3(‘무덤들’ 외), 7(‘여기는 -’ 외), 8(‘세계 기린의 날’ 외), 11(‘스타일러 스타일’ 외), 17(‘등지의 새들은 울지 않았다’ 외), 23(‘진달래 동산’ 외), 31(‘마음에 슬픔이 고이면’ 외), 32(‘꿈을’ 외), 36(‘우중캠핑’ 외), 38(‘아이들과 계절’ 외), 43(‘곧 있으면’ 외), 46(‘가로등’ 외), 49(‘그 남자가 그곳에 있다’ 외), 52번(‘입이 없는 남자’ 외) 등 14명의 작품이 예선통과를 했다. 그 중에서 또 8, 11, 17, 32, 49번 등 5명의 작품을 가려냈다.

그리고 다시 17번의 ‘등지의 새들은 울지 않았다’와 49번의 ‘두루말이 화장지가 밥이 되는 순간’등 두 작품을 최종심에 올렸다. 그리고 17번 ‘등지의 새들은 울지 않았다’를 당선작으로 뽑는데 두 심사위원은 주저하지 않았다.

당선작으로 뽑은 동경의 ‘등지의 새들은 울지 않았다’는 우선 막연한 상상 속에서 몇 부린 시적 표현이 아니다. 시는 ‘멋’이 아니라 ‘맛’이 있어야 한다. 그 시적 ‘맛’을 잘 살려 주었다.

또한 작가는 자신의 수술의 경험을 진솔하면서도 이미지로 표현하여 시로 승화시켰다. 수술대에 누워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한 상황 속에도 자신의 장기를 ‘붉은 강낭콩’이라 표현했다. 그런 점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작가는 자신의 몸을 ‘텃밭’이라 표현했고, 신경神經을 곡괭이로 표현한 점도 서로의 유기적 의미로 표현한 점이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시인은 ‘새가 되었지만 울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또한 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작품이 가진 시적 표현의 일관성과 차분함이 있어 큰 기쁨이기도 했다.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다. 시를 쓰려면 아픔을 두드려야 한다. 아픔 없이 시를 쓴다는 것은 사치다. 낙선도 일종의 아픔이다. 그 아픔을 잘 다독겨야 한다. 이번 심사를 통해 부천의 시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심사위원 구자룡(시인)

제20회 부천신인문학상 시 부문 심사평

대부분 일상과 경험에서 건져 올린 작품들이 많았다. 소재가 평범하면 형식이나 표현에서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내야 하는데 막연하고 모호한 서술이나, 식상한 표현으로 버무려진 평이한 작품들이 많아 아쉬웠다. 또한 일기처럼 그냥 서술한 글을 산문시로 생각하는 듯한 작품들도 있어서 시의 형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뭔가를 쓰기 전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숙고해보고 쓰는 훈련이 필요한 듯싶다. 주제가 정해지면 그에 따른 소재들은 자연스레 주변으로 모여들기 마련이다.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지만, 독특한 소재를 발견했더라도 그것을 형상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면 혼잣말이 되고, 공감과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투고작 중 몇몇 작품은 새로운 시각과 발상으로 심사자의 마음을 끌었다.

<세계 기린의 날>, <유적> 등의 작품은 쓴 이의 예민한 시선과 사유가 깃든 개성적인 작품으로, 소재를 시화시키는 저자의 능력이 느껴졌으나 마음을 흔드는 열기가 미약했다.

병상에서의 체험을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신선한 표현을 끌어낸 <등지의 새들은 울지 않았다>도 무척 인상적이었다.

<오로라를 마신다> 외 4편의 작품들은 소재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 자신의 말을 기어코 해내는 힘이 느껴졌다. 또한 현실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먼 곳을 바라보려는 시선은 꿈과 현실을 함께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듯해서 친밀감이 느껴졌다.

심사위원 홍순영(시인)

제20회 부천신인문학상 아동문학 부문 심사평

부천신인문학상 아동문학 부문 심사위원에게 전달된 작품은 16명의 작품이었다. 그중 한 명 응모자의 동시 5편을 제외하고 15편이 동화였다. 대부분의 작품이 신인으로서의 패기와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었고, 특히 동화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판타지를 수용한 작품이 많아 반가웠다. 동시는 어른의 눈으로 써낸 작품으로 동심이 부족한 점이 아쉬웠다.

우선 눈여겨본 작품으로는 책과 콩나무를 소재로 차용하여 그림의 미학을 주제로 재미있게 이끌어간 「거북이와 콩나무」, 별사탕을 매개로 서사성이 풍부한 판타지를 구축한 「책도깨비」, 화상 흉터 트라우마로 후드 옷만 고집하다 비슷한 처지의 친구를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후드 지온」, 이웃 할머니의 유품인 돌절구에 부레옥잠과 개구리를 키우는 생태동화적 성격과 따뜻한 서정이 묻어나는 「가족이 생겼어요」 등이었다.

최종 마음에 남은 작품으로는 「꽃게 수영」, 「나는 바다야」, 「보랏빛 일기장」 등 3편이었다. 「꽃게 수영」은 어렸을 때 목욕탕 물에 빠져 물 트라우마가 있는 수아가 수영을 무서워하던 중 엄마가 사 온 꽃게를 만나 친구가 되어 해수욕을 즐기고 수영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이야기이다. 판타지와 리얼리티가 조화를 이룬 점은 좋았으나 판타지가 상상력에만 의존해 너무 작위적인 점이 흠이었다. 「나는 바다야」는 새우 요리를 먹지 못하는 동화 속 화자의 심리묘사와 구성력이 돋보이는 시적 판타지였지만 판타지의 설정이 상상력으로만 제한되어 판타지의 구축이 튼튼하지 못한 점이 흠이었다. 마지막으로 남은 「보라색 일기장」은 문구점에서 산 마법의 일기장을 소재로 탄탄한 구성이 돋보이는 동화이다. 판타지의 동력을 위한 조건이 잘 설정되어 있고, 그 미션을 수행하는 서사구조가 빈틈없이 전개되어 믿음이 가는 작품이다. 상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주제에 잘 녹여낸 점도 장점이었다. 동화의 본령인 판타지를 잘 구축한 점이 당선작으로 미는 동력이 되었다.

최종 두 사람의 본심위원은 각자가 선호하는 작품 「보랏빛 일기장」과 「가족이 생겼어요」 두 편의 장단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장시간 토론 끝에 실험정신이 강하고, 동화의 특성인 판타지를 잘 구현한 「보라색 일기장」을 당선작으로 미는 데 합의하였다. 당선자에게는 동화작가로 정진하기를 바라고, 아쉽게 탈락한 응모자들에게는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심사위원 박상재(한국아동문학인협회 이사장)

제20회 부천신인문학상 아동문학 부문 심사평

유익하고 좋은 소재의 글감들이 많이 올라왔다. 나름 준비한 노고가 작품마다 눈길을 끌었다. 예심에서 일곱 작품을 선별했고 다시 본심에 네 작품을 올렸다. 본심 작품 중 <보라색 일기장>은 창의적인 소재와 이야기를 끌고 가는 서사의 힘이 돋보인 작품이다. <가족이 생겼어요>도 참신한 소재로 미생물에게까지 가족 사랑을 강조한 작품이다. 안정된 문장에 독자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한 작품이다. <후드 지은>은 아픈 상처를 서로 어루만져주는 두 친구의 우정이 돋보인다. 한 가지 주제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서사의 힘도 느껴졌다. <거북이와 콩나무>도 참신한 소재로 판타지와 현실과의 경계에 놓여 있어 애매하긴 했지만 유익한 글이다. 매사 느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주면 더 좋을 듯하다. 이 가운데 두 심사자는 최종심에 각각 <보라색 일기장>과 <가족이 생겼어요>를 올렸다. 두 작품 모두 손색이 없어 논의가 깊어졌다. 동화는 동심을 울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판타지 요소가 다분한 <보라색 일기장>을 선택하기로 합의했다. 당선자는 물론 응모한 모든 작가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기를 바란다.

심사위원 박주호(작가)

제20회 부천신인문학상 수필 부문 심사평

응모작들은 대체로 수필이라는 장르 고유의 글맛과 발견하는 재미의 즐거움을 보여주려는 작품들이 다수였다. 일상에서 비(非)일상의 경험을 하는 소소한 사건을 섬세히 묘사하는 수필문학의 힘은 독자들로 하여금 ‘정신의 운동장’을 넓혀주는 즐거운 독서 경험을 하게 한다. 최근 교육계를 강타한 서이초 교사의 죽음 및 학교 폭력 문제 등 우리 사회 안팎의 다양한 문제들을 응시하고 형상화하려는 작품들이 많아졌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었다.

하지만 일부 응모작들은 관성화된 글쓰기에 갇힌 경우도 더러 있었다. 나와 타자에 대한 성찰 없는 교훈과 관조 위주의 글쓰기는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신변잡기 SNS 글쓰기, 실용·여행 같은 글쓰기, 이야기의 반전은 있으나 평이하고 상투적인 스토리라인 또한 문학성 측면에서 아쉬움을 샀다. 수필이라는 장르 고유의 특성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형식의 다양한 산문적(散文的) 글쓰기들을 포괄하려는 유연한 글쓰기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마지막까지 검토 대상이 된 작품은 「초승달과 샛별」(접수번호 6), 「나를 위한 시간」(접수번호 15), 「엄마의 시절」(접수번호 20), 「문 두드리는 여자」(접수번호 23), 「퇴근길의 흰토끼」(접수번호 25)였다. 「나를 위한 시간」은 성찰적 언어는 괜찮았으나 에피소드가 없어 아쉬웠고, 「엄마의 시절」은 교육 문제를 자기 시각으로 푼 점은 좋았으나 사회적 공감대 측면에서 약점을 보였다. 「문 두드리는 여자」는 소설 형식으로 ‘자유’를 갈망하려는 노년의 삶을 담담히 그린 점이 뛰어났으나 수필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점을 던져주었다. 「퇴근길의 흰토끼」는 지하철에서 겪은 에피소드를 충실히 기록한 점이 좋았으나 메시지가 약한 점이 다소 아쉬웠다. 이 밖에도 「우리 동네 술꾼들」(접수번호 16)은 입심 있는 솜씨를 선보였지만, 장황한 만연체 문장과 문단 나누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응모작 중 단연 뛰어난 작품은 「초승달과 샛별」이었다. 일상의 에피소드를 비일상의 경험으로 바꾸는 글쓰기는 오래 글을 써본 솜씨였다. 관찰력 또한 매우 좋았고, 독자와 대화하려는 글쓰기의 태도 또한 수상작으로 뽑기에 충분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글쓰기에 꾸준히 정진했으면 한다.

심사위원 고영직(문학평론가)

제20회 부천신인문학상 수필 부문 심사평

수필은 인성을 조율하는 문학이라 여깁니다.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문학이라 성찰하는 과정에서 삶이 치유되는 문학이지요. 이번 부천신인문학상 수필 부문에 응모한 작품마다 삶을 관조하고 성찰하여 인성을 조율하는 모습들이 훌륭했습니다. 응모 편수는 40여 편이었으며, 수필과 기행문, 짧은 소설형식의 작품도 있었습니다. 작품성과 가능성을 보여 준 작품들이 여러 편 있어, 부천지역 수필의 질적 향상과 저변확대에 일조할 분들이라 뿌듯합니다.

심사위원의 좋은 평을 받은 작품들로 <초승달과 샛별> <당신들에게 보내는 위로> <문 두드리 는 여자> 등이 최종 심의에 올랐습니다. <초승달과 샛별>은 수필의 형식과 함의성과 감수성을 갖춘 작품으로써 삶을 관조하는 사유가 깊었으며, <당신들에게 보내는 위로>는 학부모 민원으로 교사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미래세대를 책임질 선생님들을 위로하고 지지하는 작품입니다. <문 두드리 는 여자>는 독거노인의 일상을 점검하는 노인복지 직원과의 관계를 담담하게 그려낸 짧은 소설형식의 작품입니다.

최종심의 결과 수필 <초승달과 샛별>을 당선작으로 선택합니다.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하지 못한 분들께 위로를 드리며, <초승달과 샛별>로 당선된 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심사위원 최숙미(작가)

제20회 부천신인문학상 극 일반 부문 심사평

작금에 있어 극문학에 대한 문학적 완성도가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 풍조다. 특히 공연 예술에 있어 희곡의 무대화, 즉 무대 언어화로의 작업은 일차적으로 희곡의 문학적 언어(대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함축적이며 간결하고 상징적 언어는 작가의 문제의식과 사유 등을 무대 위에서 더 풍부하게 전달해 주는 매개체다. 언어를 가볍고 즉흥적으로 다루는 것은 예비 극작가로서 지녀야 할 책임감의 결여가 아닐까 싶다. 극작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불멸의 시간 속에서도 영원할 수 있는 극문학의 문학적성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아울러, 모든 글쓰기의 기본은 글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방향을 일관되게 끌고 갈 수 있는 장르성에 대한 이해도에 있다. 장르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좋은 아이디어와 상상력은 난삽해지며 자신이 쓰고자 하는 장르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이번 응모작품들에 있어 전반적으로 극 장르에 대한 이해도가 무엇보다 아쉬웠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24시 무인 주민센터로 오세요>는 근 미래에 일어날 인간과 로봇과의 공존을 다루고 있는 유니크한 소재였다. 타 응모작에 비해 인물과 공간의 활용도가 좋았으며 무엇보다 극의 전개가 안정적이고 문제의식을 우화적으로 통일되게 끌고 가는 필력에 신뢰가 갔다. 하지만 다소 작위적인 설정과 극이 가지는 무대의 질감을 느낄 수 없어 앞으로 무대화 작업을 한다면 어떻게 무대를 풀어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남긴다.

심사위원 최치언(작가)

제20회 부천신인문학상 극 일반 부문 심사평

2023년 부천신인문학상 극 일반 부문에서는 총 7편의 작품을 심사하였다. 극문학은 무대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타 문학 분야와는 차별화된다. 무대화를 위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지정된 공연 시간 동안 관객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수용되기에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응모작이 현실적인 배경에 출발하여 플롯을 전개해 나가는 형식에 속하고 있기에 플롯 전개의 개연성, 인물 구축의 설득력 및 수행하는 기능에 있어서의 적합성을 우선 살펴보았다. 그러한 점에서 동시대 배우지망생 그리고 교사를 주인공으로 전개해 나간 <무제>와 <정당방위>의 경우 논리적 설득력이 다소 약하였다. 한편 <잔치하는 날> 경우 한 편의 희곡을 3부로 나누어 두 편의 공모로 응모하였기에 아쉽게도 응모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심사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럭키>의 경우 독거노인들을 주인공으로 럭키라는 강아지를 돌봐주는 조건으로 거액의 유산을 남기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나름 훈훈하게 극이 전개되고 마무리되고 있으나 다소 상투적이고 작위적인 설정이 약점이다.

<24시 무인 주민센터로 오세요>의 경우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주민센터 직원들을 대체하여 근무한다는 미래 시대의 상상에서 출발한다. 우화적인 설정에서 출발하기에 오히려 악천후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인하여 벌어지는 일련의 해프닝이 무리 없이 다가온다. 각각 맡은 업무에 따라 민원이, 복지로, 안전으로 이름 지어진 로봇들이 정전과 벼락으로 인하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기존의 인간 직원들과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결말로 마무리된다. 발랄한 상상을 통한 플롯 전개를 통하여 이즈음 대두되는 인공지능 만능의 세상에서 유념해야 할 미래에 대한 우려를 경쾌하게 담아내고 있다. 그럼에도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공존이 완벽하게 해결될 수만은 없는 과제임을 시사하여 무게감을 더해준다. 로봇 안전이가 오작동으로 인간들을 마구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전기자동차로 충돌을 하게 되는 장면 등 무대 위에서 구현하기 다소 어려운 장면들도 있으나 다양한 무대 기술 및 상상력을 기반하여 연출하는 데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리틀 피쉬> 경우 시나리오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낚시가 생업인 아버지와 수영을 하는 아들들 그리고 그들이 키우는 물고기 등을 연결하는 은유적 상징으로서 '리틀 피쉬'의 설정이 흥미롭다. 다만 파편화된 구성으로 인하여 연결고리가 다소 거칠게 느껴진다. 쓰러진 아버지와 전화 속의 인물 간의 관계도 모호하여 아쉬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접수된 <귀환>의 경우 연극계에서 대두되었던 미투 운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상처를 입은 주인공과 그에게 상처를 주었던 연출가의 재회를 그린다. 그 현기증 나는 과거로부터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고 희생되는 주인공을 그려나가는 플롯이 다소 답답하고 큰 설득력을 가지지 못함이 아쉽다.

이상 심사 결과 <24시 무인 주민센터로 오세요>를 수상작으로 결정하는 데에 심사위원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심사위원 이화원(연극평론가, 상명대학교 명예교수)